

공장 멈추고 손님 끌고...지역경제 '신음'

신종코로나 여파에 부품 부족 기아차·금호타이어 잇단 휴업
가짜뉴스에 롯데아울렛 매출 62% 급감...소상공인도 큰 타격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광주지역 대표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와 타이어 공장이 멈춰 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소상공인의 매출 부진으로 지역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

◇옵티션 자동차·타이어공장=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기아자동차는 노사 협의에 따라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광주공장을 비롯한 소하리, 화성 등 모든 공장이 휴업에 들어간다.

광주공장 군수라인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부품 공급 상황을 고려해 인기차종 K5와 쏘렌토, 모하비 등을 생산하는 화성공장은 11일부터 우선 가동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도 10일 버스과 트럭을 생산하는 전주공장의 일부 버스 생산라인을 제외한 모든 공장이 휴업에 돌입한다.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업체가 잇달아 휴업을 하면서 부품 협력사인 금호타이어도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평택공장 등 국내 사업장의 생산을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중단하기도 했다.

앞서 기아차 광주공장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 업체는 배선 장치로 불리는 '와이어링 하니스' (Wiring harness)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휴업에 들어가는 등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와이어링 하니스를 공급하는 협력업체들이 주력 공장을 중국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휴업 연장에 따라 부품 생산과 국내 공급이 끊겼기 때문이다.

다행히 중국이 춘제 연휴를 연장하지 않고 일부 공장이 가동에 나서면서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분간 중국 부품공장의 정상가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부품을 생산하더라도 운송기차 확보와 도로 통제를 뚫는 등 수송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미 국내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기아차 광주공장을 비롯한 국내 자동차 공장들이 휴업 이후 다시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공장별 가동시점은 중국 현지 공장과 부품 공급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조금 더 상황

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소상공인 직격탄=지역 화웨이계와 꽃가게 등 소상공인들은 신종코로나 여파로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이 취소·연기되면서 일년 대목을 날렸다.

광주원예농협 서구 품앗동 화훼공판장에 따르면 출하량이 크게 줄면서 꽃 가격은 반토막이 났다.

이날 기준 도미니카 장미 특1등 1단(10송이) 평균가격은 5126원으로 지난해(8898원) 보다 42.3% 떨어졌다. 이날 거래된 같은 품종 장미 거래량도 39.3%(1591송→965송) 감소했다.

더욱이 16번째 환자가 근무했다는 가짜뉴스에 롯데아울렛·마트 광주수원점은 매출이 곤두박질 치면서 피해가 극심하다.

지난 4일 오후부터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면서 5~6일 해당 아울렛 매출은 지난해 설 직후인 지난 2월 13~14

일과 비교해 무려 62% 줄었다. 아울렛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롯데마트 역시 매출이 50%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광주신세계 역시 5~10% 상당 매출이 줄었고,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광주지역 대형마트도 20~30% 감소했다.

광주신세계와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신종코로나 여파로 10일 휴점에 들어가면 매출은 더 감소할 전망이다.

이처럼 광주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금호타이어를 비롯한 지역 내 협력업체로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데다, 유통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겹치면서 광주지역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롯데마트는 광주·전남지역 9개 점포에서 마스크 구매량을 1인 5개로 한정해 판매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효성그룹, 3년만에 영업이익 다시 1조 돌파

(주)효성 등 5개사 41.8% 증가...글로벌 시장서 성과

효성그룹 주력 5개사의 영업이익이 41.8% 증가하면서 3년 만에 다시 1조원을 돌파했다.

9일 효성그룹의 효성 지주사 및 사외이사 잠정 실적 공시에 따르면 ㈜효성을 비롯해 효성티앤씨(주), 효성중공업(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화학(주) 등 5개사의 지난해 총매출은 18조119억원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7125억원보다 41.8% 증가한 1조10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주사인 ㈜효성은 매출 3조3813억원, 영업이익 2447억원으로 각각 12.6%, 57.9%씩 증가했다.

효성티앤씨(주)가 글로벌 시장 공략 확대에 따라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등 연결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됐고, 일부 사외이사들의 호실적에 따른 자본법 수익도 확대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금융 IT회사인 효성티앤에스는 미국과

러시아 등 해외판매가 늘면서 역대 연간 최고 실적인 매출 9433억원, 영업이익 972억원을 달성했다.

또 글로벌 1위 스파텍스 생산 기업인 효성티앤씨(주)도 지난해 9월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한 인도 공장을 비롯해 해외법인들의 판매량 확대로 수익이 확대돼 실적을 끌어 올렸다. 지난해 매출 5조 9831억원, 영업이익 3229억원을 달성했다.

효성중공업(주)은 건설 부문에서 주거, 정비사업, 토목 등 안정적인 우량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확대돼 매출 3조 7814억

원, 영업이익 1303억원을 달성했다.

효성화학(주)은 폴리에스터 필름이 생산성 수율이 개선돼 판매·수익이 확대됐고, 폴리케톤도 전년 대비 50% 이상 판매가 늘었다. 연 매출 1조 8125억원, 영업이익 1539억원을 기록했다.

세계에서는 취임 3년째인 조현준 회장의 글로벌 경영이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IT 분야에 관심이 많은 조 회장은 ATM 제조 전문 기업인 효성티앤에스 해외판매 확대를 주도했고, 그 결과 전 세계 30여개국 주요 대형 은행에 ATM을 공급하며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몽구 회장 '美 자동차 명예의 전당' 헌액

한국인 최초 차 산업 최고상
헨리 포드·칼 벤츠 등 수상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사진)이 세계 자동차산업 최고의 권위인 '자동차 명예의 전당' (Automotive Hall of Fame)에 한국인 최초로 헌액된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1939년 설립된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은 세계 자동차 역사에 남을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바탕으로 자동차산업과 모빌리티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 인물을 엄선해 수여하고 있다.

역대 주요 수상자로는 1967년 포드 창립자 헨리 포드(Henry Ford)와 1969년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Thomas Alva Edison), 1984년 벤츠 창립자 칼 벤츠(Karl Friedrich Benz), 1989년 혼다 창립자 소이치로 혼다(本田宗一郎), 2018년 도요타 창립자 키이치로 도요타(豊田喜一郎) 등이다. 시상식은 오는 7월 디트로이트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동차 명예의 전당측은 "정몽구 회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을 성공의 반열에 올린 업



계의 리더다"며 "기아차의 성공적 회생,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 고효율 사업구조 구축 등 성과를 낸 정 회장은 자동차산업의 전설적인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헌액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국내 경제와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끊임 없이 도전한 인물로 평가된다. IMF 당시 국내 자동차 업체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기아차를 인수해 성공적으로 회생해 세계적인 자동차기업으로 육성했고, 2010년 현대·기아자동차를 글로벌톱 5업체로 성장시켰다.

세계 주요 지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 등 명운을 건 도전으로 유례 없는 빠른 성장을 기록했고,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건설 시 국내 부품업체도 공동 진출하도록 해 부품업체 경쟁력을 확대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의 선순환형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오픈하고 모아라!' 이벤트

오픈뱅크 계좌 5만개 돌파
1만500명 편의점 상품권

올해 '디지털 영업 강화'를 내건 광주은행이 오픈뱅크 등록계좌 5만개를 넘겼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오는 한달여 동안 오픈뱅크 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연다.

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6일 기준 해당 오픈뱅크 등록계좌는 5만8320개, 가입자는 2만6101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은행은 오픈뱅크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10일부터 다음 달 3월29일까지 '오픈하고 모아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광주은행 오픈뱅크 서비스 최초 가입한

뒤 다른 은행에서 광주은행 본인 계좌로 이체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광주은행 스마트뱅크에서 오픈뱅크에 가입할 때 화면에 나오는 알림 팝업창을 이용하면 된다.

광주은행은 매주 선착순 1500명, 7주간 총 1만500명에 GS25편의점 3000원 상품권을 준다.

당첨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을 기준으로 광주은행에 등록된 휴대번호로 상품권이 전송된다.

조정민 디지털마케팅부장은 "단순히 타행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하는 수준을 넘어 오픈뱅크에 특화된 서비스와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NCS 건설팅사업' 참여기업 모집

광주상공회의소는 '2020년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기업이NCS를 도입하게 되면 직무능력 중심의 효과적인 인재채용과 체계적인 교육·훈련에 따른 재직자 역량강화가 가능해진다.

우선 광주상의는 올해 20개사를 선착순 모집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참여 기업에 컨설팅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로또복권

(제897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6	7	12	22	26	36	2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619,922,520				13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56,610,196				62
3	5개 숫자일치	1,463,650				2,398
4	4개 숫자일치	50,000				121,076
5	3개 숫자일치	5,000				1,996,656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2월호

1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버려진 공장 아트 팩토리로 부활하다

산업시대 낡은 유산, 문화재생 핵심공간으로 부상

- 광주·전남의 아트 팩토리
- 전주 '팔복예술공장'과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문화 화제

계절의 시간 건너 마음속에 피어나는 문화예

클릭, 문화현장④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순천 문화의 거리 & 청춘창고

위라별시대, 문화관광이 뜬다⑤
현대미술과 자동차의 만남
독일 뮌헨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②
공공건축 혁신으로
살아난 작은 도시, 영주

예향 초대석

서울 우리소리박물관 관장 최상일

"토속민요, 대중문화 창작 씨앗 가능"

문량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
부당한 것에 맞선 결기의 문학
부산 김정환 문학관

2020 광주일보 신춘문예 당선자 인터뷰
출발의 문 앞에서
'위로가 되는 문학' 꿈꿔요

2020 신춘문예 당선자 시상식

전서 화제
광주시립미술관 소장품
<바람이 지나간 자리>전

김정환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⑦
20세기 초 유럽 건축,
각기둥 도입 이유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창극 '패왕별희'의 여장남자 소리꾼 김준수
20년만에 광주 개인전 가진 화가 하성훈
함께, 히말라야 책 낸 오지 여행가 문승영
'KIA' 떠나 '롯데'로 이적하는 안치홍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⑥
대중문화 상품 흥행
전략과 불법 마케팅

왕인의 '예술가의 한 끼'②
궁핍한 화가 남관
파리의 소꼬리곰탕

지역문화
창작자들의 인큐베이터
전남콘텐츠포리마켓
소통 콘서트 인기

바다에서 우주까지,
고흥 드림 여행

- 집박한 분청과 신비한 우주
- 친한 향유자와 커피